“황교안이 박근혜다!” 촛불민심 박근혜 내각 동반 퇴진, 적폐 청산 요구

박성식 | 승인 2016.12.17 21:26

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차 촛불집회 “끝까지 간다! 박근혜 즉각퇴진, 공범처벌-적폐청산의 날” 대회가 열리고 60만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본대회를 마친 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행진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오늘 8차 촛불집회 “끝까지 간다! 박근혜 즉각퇴진, 공범처벌-적폐청산의 날” 대회가 연인원 60만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분노가 여전함을 보여줬다.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“박근혜 즉각 퇴진”과 더불어 “황교안 사퇴”, 박근혜 정책 등 “적폐 창산”을 소리 높여 외쳤다.

사전 문화공연인 <물러나쇼>에 이어 17시부터 시작된 본 대회 첫 번째 발언은 주최 측인 <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(퇴진행동)>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올랐다. 박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추건의 적폐청산 과제를 강조하며, △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△언론 부역자 청산과 방송장악금지법 제정 △백남기 국가폭력 특검 △국정 역사교과서 중단 △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 △사드 배치 철회 등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했다.

또한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"박근혜 한 사람에게만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다.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시스템에 분노하고 바꿔야 한다"고 주장하기도 했다. 본 대회 후 19시 경 시민들은 헌재와 국무총리 공관,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. 세월호 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공관 앞 행진에 앞장섰다. 행진 후 시민 들은 다시 광화문에 집결해 마무리 집회를 열고 다음 주 24일과 31일 다시 촛불을 켜자고 외쳤다.

본대회 앞서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'박근혜 탄핵, 구속'을 촉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집회 장소에서 '탄핵반대'를 촉구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상징하는 구명조끼가 놓여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"박근혜 퇴진"이라며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엽서. ⓒ 변백선 기자

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모이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박근혜 정권 퇴진 종강 촛불. ⓒ 변백선 기자

구명조끼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8차 촛불집회 "끝까지 간다! 박근혜 즉각퇴진, 공범처벌-적폐청산의 날" 대회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노동자 대오가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모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"황교안이 박근혜다!"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총리공관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ⓒ 변백선 기자

ⓒ 변백선 기자

박성식 kctuspeech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